東亞日報
刊夕 曜月
面八合夕朝紙本
人刷印 宋鎭禹 人行發 金炳魯
所行發 社報日亞東 社會式株
門化光 話電 代表番 一九〇〇

米佛商議本舞臺에

二十六日의第三次會議로

主로軍縮問題討議

【워싱톤二十六日發電通】二十六日午前 米佛第三次會談을 行하야 本格的商議에 入하엿는데 에리오代表는 米國이 商議範圍의 擴張을 示하엿슴에 對하야 그具體的 諸條件에 對하야 具體的問題를 軍縮及通貨物價의 諸問題에 對하야서 一一히 米國의 意嚮을 對하야 會談을 開하기로 決定하엿다

【워싱톤二十六日發電通】米佛會談은 主로 軍縮을 議題로 하고잇다 早人團長 大統領은 廿七日午後 佛에리오代表와 戰債問題를 議할터이다

米佛會談의前途

重大한困難豫想

英米佛三國會合에도

消息通은別無期待

米上院을通過

인풀레修正案

「銀貨를本位貨로하는것과 金銀貨無制限鑄造」

戰債支拂猶豫와

關稅改革權限

早大統領議會에要求

英米同盟은 無要

맥首相의宣言

맥英首相이

注力한二點

廿六日夜는요발歸國

深刻한貿易戰

米上院議員 대氏의演說

協定不成 면

軍縮幹部會

廿七日開催

武器禁輸協定에

米大統領도贊意

從來의中立的立場으로부터

好意的支持로變換

米造幣局長

中國에招聘

顧維鈞渡米

華府에서宋、郭과合流

豫備商議暗躍次

重輕爆機無事歸還

諮問團에서日本除外

中國代表의修正에同意하야

軍縮一般委員會에서

米國의態度判明까지

保障條約決定不能

廿六日軍縮一般委員會에서

英佛獨各代表聲明

關東州辯護士는 不遠許可主義로

江西省의 共產軍猖獗

十九路軍의 本據에切迫

印度의棉布關稅

二割五分引上

但英國製品은除하고

東京市長에牛塚氏

京日九千號祝賀會

松岡全權歸朝

橫濱港頭은壓한萬歲

北中大移動

開始

消息

顧維鈞渡米시켜

滿洲問題解決

日滿軍에積極的으로反擊

國府要人重大會議

一、河北問題

二、外交問題

滿洲農地開拓會社

一、名稱 滿洲農地開拓會社
一、資本金 二千萬圓
一、存立期間 三十年

米佛問題諒解

軍縮戰債問題

北中全軍隊

何應欽이統帥

藏相辭職實現同時

出身閣僚는總退却

廿六日政友總務會에서決定

重臣은內閣更迭不希

直木三十五全集

(內容見本進呈)

先づ實物を御覽下さい

出版史上に……
……太陽の如く輝く
書きおろし全集生る

第一卷 源九郎義經(卷上)
第二卷 源九郎義經(卷下)
第三卷 荒木又右衞門
第四卷 石田三成
第五卷 高野山血染草
第六卷 吾れ戰に破れし時
第七卷 次の世紀(以上七卷・書きおろし)
第八卷 明暗三世相
第九卷 南國太平記
第十卷 殿堂を碎く
第十一卷 仇討雜記 由比根元大殺記 帳
第十二卷 大阪落城

豫約募集
全十二卷 壹册壹圓
申込金不要
東京・芝區新橋七丁目 振替東京八四〇二一番
改造社

★第一回配本開始
果然申込殺到!!!
第一回配本 源九郎義經上卷

ClibPDF - www.fastio.com

舍音臺帳作成을따라 白日下에暴露된惡弊

臺帳完成되이 西署第一着으로

中間搾取狀況을報告

사음(舍音)제도의 폐해와 [illegible] 소작인을 보호하게 [illegible] 각 경찰서에서 예의 조사한 결과 [illegible] 이것을 미루어 전조선의 사음대장을 완성하야 [illegible] 소작인의 [illegible]

[illegible]

小作權移動은 惡舍音의弄奸으로

各樣方法으로小作人을壓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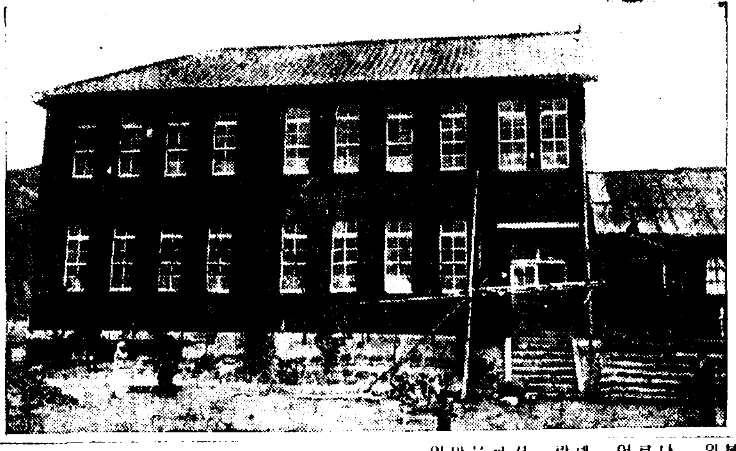
서대문서에서 사음대장을 완성 [illegible] 사음총수 九十九명이오 [illegible]

一、소작권이동에 대하야 [illegible]

永同赤色農組 事件審理를終了

장준의 피고十一명 공판 求刑은五月一日에

【공주】 [illegible] 영동(永同) [illegible]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 [illegible] 제一회공판을 지난 [illegible] 二十五일 오전十一시에 [illegible] 재판장 주심하에 [illegible] 개시하야 [illegible]



◇새봄에 새집지어 반기는 화산학교

하늘아 흐리건, 맑건 그저, 꽃구경 사태

◇어제보다 못지 않은 이따!

春興에잠긴 서울街頭

◇……꽃을 시새는 [illegible] [illegible]

새校舍도竣工되어 曙光비친華山校

◇교주 정봉현씨의 결정체

財團法人을申請中

[illegible]

우리 빤조이스트 崔氏·五日釜山에

상해에서 매일 연주에 분망 三日上海丸으로出發

【상해특전】 [illegible]

旅客機顚覆詳報

조선안에 생긴 처음사사

◇損害는三萬餘圓

機體는解體 乘客은汽車로

【경성】 [illegible]

새벽 나팔 二년

◇이수 이리 나시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본뜩만한 金允三君

【홍원】 [illegible]

撫順普通學校 二學級을增設

【무순】 [illegible]

兩治維法事件의 公判期日決定

五월하순 부산법원에서

【부산】 [illegible]

柳枝煥氏特志

【남해】 [illegible]

扶餘窺岩서도 衡平社員檢擧

【부여】 [illegible]

레코드音樂會

[illegible]

大阪地方豪雨 浸水一萬戶

시내에만 침수가 一만호 鐵道被害도퍽만타

【대판특전】 [illegible]

汽船六隻이 暴風으로沈沒

【대판二十六일발전보】 [illegible]

兒童五十名 遙拜式뒤에卒倒

◇大邱에생긴大慘變

二十七일 오전 [illegible]

兩青年突然檢擧 電線切斷事件?

【청진】 [illegible]

鍾路署管內淸潔날자

[illegible]

女子體育獎勵는 家庭婦女부터

朝鮮女子體育獎勵會臨總

詮衡委員選擧코閉會

朝鮮의 體育問題는 男子에 못하지 않게 女子에 잇어서 가장 急先한 問題이다。이 問題를 解決하려는 곧은 意氣에서 생긴 朝鮮女子體育獎勵會가 그동안 이러가지 不得已한 事情으로 겨자고 잇든바 이것을 깨우고자 同會에서는 臨時總會를 昨二十七日 午後一時 寬勳洞 同德女子高普講堂에서 會長趙東植氏司會로 열고 그동안의 會務經過 經過報告가 잇엇고 一部會員이 任員을 改選하는 詮衡委員五氏를

金活蘭、宋今仙、林마리아、徐恩淑、金東植

等五氏에 會長을 加하야 定하고 오는 五月一日에 午後四時 鐘路青年會館에 열기로 하엿다。

그리하야 이 詮衡委員이 會長副會長과 理事若干人 監事를 詮衡하기로 하기로 新規事業은 新幹部에 一任하기로 하엿다。

이에 다가 女子體育獎勵는 男子의 그것과 갓이 學校에 限할것이 아니라 女子에 잇어서는 더욱이 女學生보다도 一般家庭의 女子에 置重하기로 意見을 加하엿다。

보비와多賀 職業拳鬪決戰

五月六日京城서

京城拳鬪俱樂部主催의 職業拳鬪大會는 來五月六日 午後一時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다는데 日本에서 早大拳鬪部 創設者의 一人인 多賀安郞選手와 殺人빽서로 有名한 필립핀選手「보비·윌스」等이라한다。

多賀選手는 二十二日에 이미 入京하엿고 보비選手는 二十六日夕에 入京하엿다 이 두選手는 昨年四月十七日 東京의 [illegible]에서 十回對戰의 [illegible] 多賀에게 [illegible] 當하야 보비는 今年 東京에서 多賀에게 挑戰을 하엿섯으나 이번 京城에서 열기로 된 것이라한다。

多賀는 苑洞 朝鮮拳鬪俱樂部에서 보비는 京城빽싱구락부에서 猛烈히 방금 練習을하고 잇다는데 이 게임에 斯界는 多大한 興味를 자아내고잇다。

◇寫眞은 廿七日 本社를來訪한 보비選手와 그의싸인

日籠支部聯盟戰

日本籠球協會 朝鮮支部主催의 俱樂部리-그戰 스케쥴은 다음과갓이 發表되엿다。場所는 HG俱樂部코-트이다。

廿七日 午後四時용友ー城大、五時靜和ー용山工作

廿八日 午後五時靜和ー城大

廿九日 午後一時城大ーHG、二時용友ー靜和、三時용山工作ー城大、四時용友ーHG

三十日 午前十時靜和ーHG、十一時용山工作ーHG、十二時용友ー용山工作

實業野球聯盟 紅白野球劈頭戰

京城實業野球聯盟에서는 예년에 依하야 新人의 紅白戰을 二十九日 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이라는데 各各 二組式으로하야 二次의 게임을 行할터이라 한다。

自轉車競走大會

京城自轉車商工組合에서는 來廿九日 午前九時에 [illegible] 京城運動場에서 自轉車大會를 열터이라고한다。

運動界動靜

▲高鳳悟氏(氷上과 庭球選手)이번에 朝鮮日報運動記者로 就職

今日

陽 四月二十八日(金曜)
陰 四月四日(甲子)
日出 前五、四二 日沒 後七、一七
月出 前七、一八 月入 後一〇、五九
【滿潮】
仁川 前七、一〇 後七、〇五
釜山 一〇、〇〇 一〇、三〇
龍岩浦 一一、一五 一一、二〇

東京 優良品製造問屋 案內

金庫及鋼鐵家具 耐火書庫類製造元 合資會社 小泉金庫製作所

東京製品の生粋

石鹸問屋 化粧石鹸 洗濯石鹸 粉末石鹸 浮石鹸 油脂洗滌用石鹸 其他特種石鹸 東京日本橋横山町 ウツマキ石鹸本舖 近磯商店

ゴム風船、ホーツキ ゴムフートボール ゴムバンド ゴム玩具一般 澤田屋ゴム店

春向豐富取揃 シャツ カラー ネクタイ 洋裝附屬品 細谷商店

模型飛行機材料問屋 中村模型

玩具 玩具專門問屋 鳥井屋商店

催上間 千載一遇 萬年筆

清水商店 最新型鉄卸定價表

理髮器具 バリカン カミソリ ナイフ ハサミ 古川一郎商店

海水浴用品 牛若印 アサヒ印 ゴム製品 桃太郎印 オシメカバー 枕 五味商店 發賣元

小玩物具問屋 至る所で賣れる 岡田三七商店

菊地一貫堂

森下爲藏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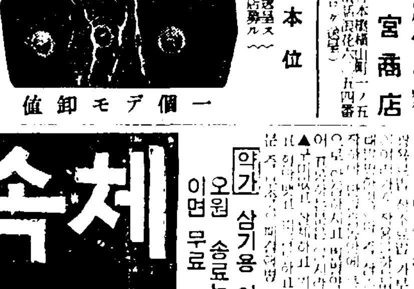
均一品問屋 晃陽商會 稻宗製作所

孔雀印カメラ 孔雀活動 萬卯商店 原田商店 高島屋商店

ゴム引防水 マント ゴム引防水レンコート 鈴木彌吉商店

袋物問屋 小宮商店

金庫一般 一個デモ卸値 品質本位 野坂製作所



기침·담 천식엔 엣치세ー 제일

약가 완고용삼원、중증에이원、경증에일원 지방송료는 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

치질엔 엥구루가 제일이요

약가 중증에이원、경증엔일원、송료 선금이면 무료、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이오

부족증·폐병 륵막염에 나오세ー가 제일

약가 삼기용 이십원 이기용 십원 초기용 오원 송료는 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 선금이면 무료

체증과 속병엔 새로발명한겡오ー를쓰시오

약가 완고용(頑固用)삼원 중증용(重症用)이원 경증용(輕症用)일원 지방송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 선금이면 무료

京城西大門町二丁目八六ノ一 神聖堂藥品部

ClibPDF - www.fastio.com

五十餘名作權剝奪 郡警에調停依賴

자기가 자작 하겟다는 리유로 水稅半分決定코도

【함흥】 춘경기를 당하야 ... 작권을 자작하겟다는 리유로 ...

淸州蠶業會定總

【청주】 청주면 ... 제四회 정기총회 ...

廣州大旺公普 五月一日開校

수용인원은 겨우 七十명인데 志願生은百二十名

【송파】 광주군 대왕면 ...

面書記五人採用 志願九十六名

【김천】 김천군 ...

婁牧師送別會

城津洋書展延期

前川婦人會

【전천】 ...

一、昨年度事業報告
一、思北線延長運動件
一、中學校設置運動件
一、法院昇格運動件
新事業計劃 昨年度事業繼續

中央日報雲山支局 記者를亂打重傷

싸홈을 조사하러갓다가 의외에 金組郵所書記等이

【영변】 ...

李面長談

金組理事談

春耕期當해 作權을移動

八木農場의舍音이作權을移動 群山支廳에調定提出

【군산】 ...

日本따群山間 電話直通陳情

【김천】 ...

五個小漁港 修築을陳情

盈德郡良浦、大甫、惰河、大津과 慶州郡甘浦에까지

【포항】 ...

不孝子逐出 洞民大會開催

마츰내警察引致取調

【단양】 ...

四郡隣接住民 市場復舊要望

【문산】 ...

安岳大遠面 天然痘發生

【안악】 ...

城津婦女會 發會式盛況

【성진】 ...

信川溫泉에서 全朝鮮脚戲

【신천】 ...

平原公德面 普校期成會組織

寄附金募集에活動

【영유】 ...

淸州婦人見學 五月三日延期

【청주】 ...

前途囑望되는 江華産業組合

인적이 광호하야 배당액七부 組合落成式도擧行

【강화】 강화 산업조합(江華産業組合)은 ...

(사진은 동조합 락성식기념)

裡里消防組記念

【리리】 ...

老人을毆打코 가락지 떼어가

세금을 받으러가서 빼앗으려 迎日郡廳員의所行

【포항】 ...

江界讀者園遊

【강계】 ...

四五日延燒 朔州에山火

密林地帶로鎭火不能

【대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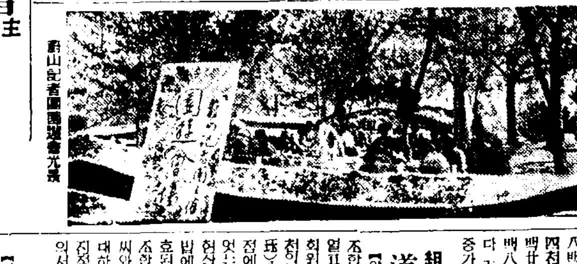
鐵山夜學盛況

【철산】 ...

喪家賭博의 惡習을取締

종래에는 묵인의 태도엿스나 ◇江華署에서實施

【강화】 ...



群山記者團選盡會光景

新安州 金組員負債 一人當百廿圓

【신안주】 ...

組合長選擧不平 道當局에陳情

【영암】 ...

準備委員會主催 馬山市民運動

來七日俱樂部場에서

【마산】 ...

中和에雨雹

【중화】 ...

滿浦鎭火災

【만포】 ...

長湍養鷄講習

【장단】 ...

朝鮮劇場 — 楊子江의帆船 / 日새쓰獨唱 / 洪吉童 / 사랑의合理化 / 地獄의天使 / 脫走兵

團成社

매링 독질 王治藥

有田音松賣任製劑 — 帝國大學醫科大學病院 英米獨佛醫科大學病院

肺病 늑막염 — 有田도락구 專賣所

俄然 消化促進!! 過飲過食도대번解消하는

美味胃腸藥 ゴルフ (골프)

製主 — 제一라스아지까다 素化消力强

製鑑 高橋三郎先生 藥學博士

送呈 試供瓶

元賣發 東京 ... 壽昌製藥株式會社

龍角散의 十大特長

圓滿迅速 담기침 천식의 愉快한治療

1. 病原에作用함
2. 咽喉를부드럽게함
3. 呼吸을平安히함
4. 기침의靜止作用이잇음
5. 胸部에影響을防止
6. 熱이解消됨
7. 肺炎에의變症을防止
8. 肺結核의痕跡이안됨
9. 副作用이없어
10. 他藥과併服해도無關

名藥 龍角散

담을제하고기침을멈추어 肺炎、肋膜炎、肺結核을防止

龍角散主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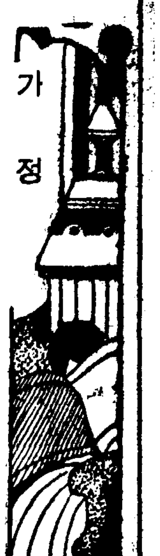
痰咳患者 / 喘息患者 / 咳頻發者 / 感冒患者 / 肺病咳者 / 血痰患者 / 百日기침 / 痲疹기침

定價 二十四錢 四十錢 五十錢 ...

發賣元 東京市 ...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全國各藥店에잇음▲

ClibPDF - www.fastio.com



가정

외과병과 봄 (下)

나무에 새싹 틀때 많이 나는 부스럼은 짜면 안된다
이철에는 광견병에도 특히 주의할일

京城帝大松井外科教室 金河橙

봄이되어 언[illegible]이 많이 나는 사람 또 젊은이나 용종이 있는 사람이 좋은 시기를 이용하야서 동산 혹시는 어떤 운동을 한 후에 갑작이 사지(四肢)나 혹은 기타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아프고 쑤시는 때가 잇습니다. 따라서 고열(高熱)이 잇으며 아픈쪽 사지는 사지 못하고 속으로 부어서 갑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한것뿐아니라 어려곳에 이병이 생기는때가 많이 잇습니다. 이곳에도 생기고 저곳에도 생기므로 이것을 주마단(走馬丹)이라고 합니다 이주마단 이라고 하는것은 비단 그러한때만 생기는것이 아니라 젊음이든지 용종을 친후에도 몇시간안되어서 주마단이 생기는때가 잇습니다 봄철에 아무리 좋은 곰자리가잇드라도 이러한종기잇는 사람은 운동을하면 아니 됩니다. 될수잇는대로 의사에게 완전한 치료(治療)를받기전에는 무슨 운동이든지 하지않은것이 좋습니다. 만일 용종이도 이러한 주마단을 일으킨때에는 의사에게 완전한 치료를 받을것입니다.

겨울철에 감기가 쉬어 폐렴(肺炎)이 생기든지 우여히 늑막염(肋膜炎)이 생겨서 그로부터 이기회에 고름이 드는때가 잇습니다. 이것을 농흉(膿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봄에 외과 의사에게 오는때는 느지기울이나 첫봄이 됩니다. 이러한 병은 [illegible] 목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할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봄철에도 자연이 음식(飮食)에대한 섭생을 나쁘게 하는때가 많이잇는 까닭으로 봄철이 맹장염(盲腸炎)이 잇으며 그뿐아니라 장중첩증(腸重疊症)과 같은것도 적지 않으니까 이러한데에 대한 주의는 제일로 음식물입니다.

어린것들의 식욕은 생식을 금하며 예날것을 미리 씻잡은것 저작(咀嚼)을 충분하게 하야 소화잘될음식을 섭취할것입니다.

만일 이병이 일어나면 배가앞으고 구토가 생깁니다. 그런데배는 오목가슴이나 바른편아래배가 아픕니다. 그리고바른편아래배에도 지쳐 날무르면 아픔니다. 이런때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기전에 함부로 쓰면 대단이 재미없습니다. 터욱이 장종 치중에 접사양을 쓰면 원종한 증세를 발하고 치명(致命)되기도 하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이 생긴이도 생기면 곳 외과 의사에게가서 수술(手術)을 받든지 제일상책입니다.

보통 외과 의사에게는 겨울에 생기잇는 병을 치료까닭으로 기후 좋은 봄을 이용하야 치료를받는 사람이 많은까닭으로 실상은 봄에 어떠한 종류의 환자가 많이 온다 하드라도 그병은 봄에 생긴것이 아니라 동기에 생긴까닭으로 그병에 대한 주의는 약합니다.

봄철에는 가축동물(家畜動物)중 개에게 광견병(狂犬病)이 류행하는 때가잇는 고로 미친 개에게 물리는 환자가 지방적(地方的)으로 많이 잇는 때가 잇습니다. 이런 광견병이 유행하는 때는 개에게 특별이더 주의를 할것이며 혹 개에게물리는 때가 잇으면 그개를 잡아죽이지를 말고 수의에게 진찰을 시켜서 광견병에 유무를 진찰하야 만일 미친개이면은 물린자리를 곧 입으로 빨고 독의 더 우로 들어가지 않도록 상부(上部)를 처매고 곧 의사에게 가서 세균한 치료를 받고 예방주사를 맞을것입니다. 죽더이라도 광견에게 물린 자리가 잇을때에는 요서치 말고 완전히 치료를 할것입니다. (끝)

童謠事業團體 계수나무會創立
兒童雜誌 계수나무도發行

조선동요의 연구와 제작 및 보급을 목적으로한 동요사업단체 계수나무회가 윤석중씨의 발기로 창립되엇다.

이 회에서는 작곡발표회 동요감상회등을 여는 한편 기관지계수나무와 동요집 작곡집등을 발행하려라는바 윤석중동시집 제일집(尹石重童謠集 一輯)도 곧이 비란명기는 금번에 나오리라하며 제일회 동요감상회는 오는까지 조선서 불리진 三[illegible]편의 동요가운데서 二十편을 뽑아가지고 五 동요는 계속하리라한다. (사무소는 京城鐘三洞 百二番地의六)

新刊紹介

▲康崎式姓名學 發行所東京市神田區須田町一丁目五 五根館出版局 定價五十錢 振替京城東京七七五七二番

▲朝鮮의안해 [illegible] (小說集)定價三十錢送料二錢 總販賣京城寬勳洞 株式會社 以文堂 振替京城一〇二七五番

▲株式世界四月號 發行所 東京市下谷區清水町一 株式世界社 定價三十錢 振替東京三四五〇七番

紙上病院

임신에 금게랍

[문] 二十세가 된 나자이온데 二개월만에 모르고 금게랍을 먹고 유산을 하얏습니다. 또 다시 이후도 임신할수 잇을까요 속히 하교하시옵기를 원합니다. (目日生)

[답] 임신중에 금게랍으로 유산된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임신할수 잇으므로 염려마십시오. (京城帝大産婦人科教室 尹泰權)

만성이질

[문] 十八세 미혼소녀이바 금년 七월 하순경에 이질에 걸리 그러 대소히지 않기에 그대로 부얻는나 그것이 만성이 된후에 양와 함께 그외 여러가지 약을 써보아도 효과는 없읍니다 더러 근래에는 뒤보는 수가 적으다 감하야 一일평균 三、四회씩이데 뒤가 급하며 묽뒤가 나오고 또 새빨간피가 흐르며 뒤본후에는 밑이 아파서 고생입니다 무슨약을 써야되며 어떤 음식물을 삼가하지 자세이 하교하야주소서. (재영)

[답] 이질에 무가지가 잇고 그외에 이약가는 증세를 가진 다른병도 잇으며 그치료법도 다소 다릅니다. 대번 검사를하야 위선 그병의 진단을 확실히 하십시오. (京城府立診療所 內科 朴鎬秉博士)

입안이 멀버

[문] 五十二세된 남자이온데 一삭전에 가사에 노력을 하엿드니 그후부터 우엇이엇이 생김며 입안이 멀버지고 담배 먹으면 더하며 또는 기름진 부리 목아래가 지리며 붓는것도잇고 다 매우 쇠약 하아지고 오직한 시쓸 잠이깨면 다시는 잠을 들지못하고 밤이나 낮이 바쁘신중 미안하오나 치료방법을 명교하아 주십을 바랍니다.

[답] 정신시 노리 혹은 육체적 노리으로 심신을 피곤케하면 혼이 뭇의하신 어러가지 증세가 오는수가 잇습니다. 그런고로 위선 적당한 휴양을 하도록하시고 좌기약을 복용하아 보십시오

一、가루모진 ○、五

乳糖 ○、五

右與一包 每就寢前 服用

봄의追憶 海棠花의 三重奏

盧春城

미사海棠花—그 이름조차 아름다운 이 꽃도 봄수레에 실려오는 女子中에 하나인 것이다. 四月에도 좋으냐—하늘 맑고 구름 한 그 날 아침 銀鈴같은 이 소리를 오늘에 뿌리고 고요히 朱唇을 벌리는 이 꽃의 모양……나는 경이라면 이 봄을 잊을 수가 없다. 世中에도 꽃이 봄에 피는 이 꽃—。

××

때는 一九一五年。 場所는 黃海道 明沙十里—친구 K君과 함께 이곳을 찾은 지도 벌서 十有三年이다. 그러나 이 가슴에 박힌 그 아름다운 追憶을 다시 이 줄이우에 펼쳐나 볼까?

××

明沙—里—잘두 소리 아리이다。古人의 읊기 쉬움은 하고 흰 모래로 써 바르랏 盛裝한 「꽃—里」 그 十里에는 이름이 생엿는가? 한 꽃이 되엇는가? 故斯女士의 따너이 마음껏 化粧한 그 얼굴도—이 白砂鋪만 못하리라。이렇듯 十里白砂에 포기포기 피어오르는 海棠花—눈같은 모래우에 피빗같은 그꽃—그꽃우에는 파랑새까지 大空에 높을 그리며 歡迎飛行을 하는것이다.

「봄이란 아름답다」「사람이란 살고싶다」 이러한 人生讚歌도 이러한 때에 불러 보는 것이다。海棠花의 밝일에는 눈빛모래가 微風의 장단에 조그써 봄이면 그 고운 꽃우에 白銀色 물결을 씌워 놓은 것이다 그리며 파랑잎새가 그늘 부르는 꽃이 「꿀」하고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하모래 빨갓꽃 파랑새—이것이 우리 미사海棠花를 싸고도는 三重奏가 아니냐? 나는 白砂우에 빗대로 누워 한손으로 꽃을 따며 눈길 간드리면 永遠의 [illegible]를 傳하는 黃海의 雲浪는 속삭하고 雄大한「오케스트라」를 演하고 잇다 나는 싸가지고 온 點心을 먹으며 한손으로 Life Freedom 이나 My Heart나 하고 모래우에 글 자몽을 치면 그 고운 바람조차 성금내며 얇미운 사나운 그 만무라는듯이 그 자욱을 모다 파묻고 간다. 나는 시름없이 모래우에 씁어지며

「지새감이 날고 싶은 이마음이어 지꽃같이 피고싶은 이가슴이어…」

하고 부르짖엇다. 그리고 두팔을 벌려고간 大空을 한아름 껴안으며 나는 大義公道를 爲하야 이마음은 저 하늘빛에 사기두고 永遠이 그기슴 한잇게 간사고 [illegible]하엿든 것이다. 그러나 十有二年—이 지난 오늘날에나는 파연 大義公道를 위하야 꽃이 피고 날게를 치는 사람이 되엇든가? 明沙十里의 海棠花여 너는 파연 나의 盟約을 잇엇는가? 봄에도 늦은 봄—이 봄에도 너는 만발 피어잇나냐의 누엇든 자리나마 그때 香氣로운하시이냐. (끝)

明日의프로

JODK 廿九日 土曜日

◆[illegible]◆

晝間部

▼正 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氣象通報

▼零時三十分 廿一人

▼零時五十分 俱樂部

一、[illegible] 江上風月 (春香傳中)

二、雜歌 金[illegible]姬 鼓手 沈相九

▼一時二十分 市況 (齊唱)

夜間部

情報

◉[illegible]放送記念의밤◉

▼六時零分 童謠 綠星童謠研究會會員 柳基興

一、獨唱 피아노伴奏

가、[illegible]……柳基興作曲

나、봄……尹克榮作曲

二、齊唱

가、종달새……柳基興作曲

나、[illegible]……同

다、[illegible]……同

▼六時二十五分 兒童劇 朝鮮兒童劇硏究所會員 [illegible]

▼六時三十分 講演 朝鮮放送協會理事 [illegible]

▼七時零分 童謠 (京城府[illegible]公會堂에서中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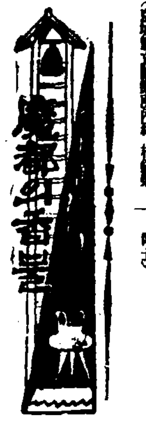
▼七時四十分 [illegible] 中央樂友會管絃樂團

▼八時五分 民謠 [illegible]

▼八時四十五分 流行歌

▼九時零分 放送舞踊劇 朝鮮放送劇協會

▼九時三十分 時報 氣象通報 明日프로그람發表



【一一九】

方仁根 作 李靑田 畫

출발(出發) (1)

그 길은 피물에게서는 숨냄새가 물린 낫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예하를 더듬엇다. 예하는 벌떡일이나며

「이게 누구야?」 하고 날카랍게 소리 치고는 이불로 몸을 둘둘 말아쌋다.

젊잔은 무서울만치 침묵하엿다 그 피문은 무어라고 말할것을 생각하는 모양이엇다.

「아니 나가면 소리칠 터이요」

하고 문득 그것이 민호나 민주인줄 알고 그렇게 말하엿으나 다음 순간 예하를 소스라치게 한것은 뜻밖에 모르는 도적놈이나 아닌가? 그러면 만일 반항하다가는 그가 반드시 가지고 왓을 칼에 찔려 죽을 것을 생각하니 아뜩하고 더한층 몸이 떨리엇다.

「용서하십시요」 하는 귀신같은 소리가 들리엇다. 그것은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엇다. 예하는 불행중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숨을 내쉬엇다.

「나가시요?」하고 예하는 화살처럼 쏘아 말하엿다.

「아이 취해—」난 우리 방인줄 알고 취중에 들어왓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 합니까 하고 민수는 아무리 해 [illegible] 소리로 나수히 말하엿다. 그리고 예하에게 씀이지려고 하엿다.

「아니 나가시면 [illegible] 소리칠 테이에요 당장 나가서요!」

민수는 예하의 서슬는 쪽이 녹초하게 넘어가지 아니 할 [illegible] 스므로 엎어서며

「그럼 아무에게도 말씀 마십시오 정말 취중에 정신 없어 실례 햇습니다 네?」

「그럼 얼른 나가서요」

민수가 나간 뒤에 예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커 놓고 이불우에 씁어지 앉엇다. 자기 신세가 이렇게 처하게 되고 모욕을 받는가 하는 분한 생각이 치밀엇다. 예하는 눈물을 씻고 단정히 앉아서 깊이 생각하여 보앗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겟다. 내가 이런 집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잇는 것 부터 잘못이다. 왜 부호의 집에 와서 부랑자들의 희롱감이 되고 잇을 것인가. 나가서 내손으로 일을 하며 밥이 먹고 살자! 취직이 되든지 직공이 되든지 무엇이나 사회로 나가야 보자!—나는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잇느냐. 왜 나는 자꾸 [illegible] 마음으로 약하게 되엿노—마는 나사람도 나를 넘기다 보는것이다. 왜 나는 좀더 씩씩하게 나서세게 치세를 못하엿노. 이 약한 마음이 나를 이렇게 망친 것이다……

이렇게 예하는 끔찍이자기 성격을 해부하며 비판해 나려갓다. 그리고 자기의 약하고 무른 성격을 불에 달구어 쇠메로 두들겨 단단하게 하려고 하엿다.

……그러자면 나는 볼가마의 사회로 들어가 거기서 연단을 받아 보리라 그래서 나는 사람다운 여자다운 일꾼 하다가 죽으리라!

예하는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속깨닫엇다. …왜 나는 이렇게 숨어 다니고 사람을 무서워 하며 피할 까닭이 무엇인가. 광명정대하게 비겻이 나가면 그뿐 아닌가. 아버지 계모를 만나도 모든 말을 떼패하게 하고 집에 아니가겟다면 그뿐아닌가. 그밖에 동모 선생 모다 만나도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갈 길 나 할 일을 하는데 그런 사소한데 구애될 것이 무엇이랴!……

예하는 커다란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앗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시원하고 용기와 희망이 나며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엇다. 무겁다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것처럼 가뜬하엿다. 세상과 싸워 보고 사회에나아가 분투하는 생활이 퍽 유쾌한 것 같앗다. 미지의 나라로 이행은 떠나는 기쁨이 용솟음 첫다.

예하는 밤새도록 자지않고계획을 세워 놓앗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예하는 거리로 나왓다. 「부대방」으로 들아다니며 방한간을 얻어 놓고 하엿다. 몇집으로 다니며 「간회」영감과 방을 구경할 때 예하는 비로소 서울에 이 마치 좁고 누추한 집과 방이 잇다는 것을 알엇다. 그집 그방들은 사람이 살수 잇는것인가 하고 예하는 의심하엿다. 예하는 어젯밤 생각하든 것과 이 아침한 실과 비교할때 마음이 꺽이지려고 하엿다. 그 캄캄한 마굴속같은 방에 아직 어린도 되기전에 [illegible] 되문이엇다. [illegible] 예하는 감녀 짓으로만 생각하엿다. 이리 것을 보다가 「[illegible]」어떤 [illegible]에 방하나가 비것이 잇어 매일 五원씨에 정하기를 약치는 주엇다. 이집은 시골에 [illegible] 부부가 [illegible] 하야 집 한편에 붙어 잇는 十여개 방을 사양세로 줍것이네 예하가 얻은 방은 조금 마로 떨어서 잇는 조용한 방이엇다. 예하는 「간회」에게 도배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엿다. 저녁때 예하는 피곤한 다리를 끌고 계동으로 향하야 천천히 거러 갓다.

中將湯 (중장탕)

婦人病은나무잎이싹트는지금이第一무섭다

次의症狀잇는분은特히注意를要함

▲腰足이厥冷하고下腹이땅기는듯아픈사람

▲月經不順으로頭痛、眩暈이잇고肩臂가나고上氣되는사람

▲늘帶下가나리고下腹이에여내는듯이아픈사람

▲늘身體가疲倦하고氣分이憂鬱하야悲觀잘하는사람

以上容態中어느것이든지잇는분은시급히中將湯을服用하야重症이되기前에婦人病의治療를圖謀하십시오

弱한小兒도童丸으로자란다

小兒良藥 童丸

主効 小兒の五疳、驚風、[illegible] ひきつけ、ちゝおつ、熱さまし、其の他胃腸病より起る諸症

定價

津村順天堂

就寢ノ前ニ

ウテナ花印コールドクリーム

우데나

肌膚의 몬지와 더럼 白粉들을 조므시기前에 말숙하게 씻으십시요

고은肌膚의 魅力은이리하야 길러집니다

東京本鄉二丁目 久保政吉商店